

# 기술 진화를 리드하는 통우연



**회** 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원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에 활기와 사업의 번창이 항상 함께 하  
 시길 기원 합니다. 또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는 연구회의 “위성통  
 신과 우주산업” 제13권 1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의 구체적 실천을 향하여 힘차게 웅비의 날개를 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도시혁명 이후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과연 다음에는 무엇이  
 등장할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IT 혁명 후 도래할 새로운 사회 즉 언제, 어디서나, 누구  
 와도 시공을 초월하여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우주개발 프로그램은 미국, 러시아, 유럽이 주도적으로 개발하였으나, 현재  
 일본이 발사체 및 위성개발에 투자를 확대함과 중국이 전략적으로 우주개발에 참여함  
 으로써 우주 개발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으며, 경쟁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05년을 우주원년으로 선포한 우리나라가 2006년에는 무궁화위성 5호의 발사 및  
 우주인 선발 등 우주분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획기적인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  
 니다.

세계는 최근 초고속정보통신과 인터넷 등 IT 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정보 매체  
 와 문명도구들이 결합 또는 융합되어 새로운 형태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파 이  
 용기술의 발달에 따라 응용 분야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도 잘 확인하  
 고 계실 줄 압니다. 공공 부문 이용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이용이 매  
 우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멀티미디어서비스의 확대와 통신대역의 광대역화 및  
 대화형 서비스의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서 융합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위성관련 산업과 IT분야 산업의 큰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상황 진전을 산업효과로 반전

시킴은 물론, 기술발전과 정책적, 제도적인 면에 이르기 까지 진전을 이루어야 할 책무가 또한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라는 새로운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주의 개발이나 우주산업 분야는 첨단 복합 기술을 요하는 분야이며, 개발을 위한 초기자금 수요가 막대한 분야입니다. 국가적 거대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효과적인 개발프로그램을 개발함과 아울러 저변 확대와 사회적 호응 아래 중요성의 문화적,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매우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학,연 각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우주개발 및 산업 발전의 객관적 발전 방안의 논의와 개발은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국내 위성통신 및 우주산업의 기술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우리 연구회에 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의 출현에 대비하여 위성 및 우주기술의 새로운 개념과 그 역할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이 병행 될 수 있도록 연구회가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하여 금번 호에서는 기획특집으로 우리나라의 위성분야의 전반적인 발자취를 돌아보고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중위 위성우주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봄으로서, 우리들은 이러한 위성사업의 현황과 전망 등을 통해 새로운 위성 서비스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장차 도래할 새로운 사회에서도 위성과 우주기술이 중요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호를 통하여 우리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면서, 바쁘신 중에도 원고를 기꺼이 수락하고 집필하여 주신 집필자 및 편집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

2006년 6월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 회장 **김재명**  
(인하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원장, 교수)